

코로나19와 마스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본 마스크 착용에서의 동서양 문화차이

강 민 혜 정 찬 문[†] 나 진 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는 인류에 큰 위협이 되어 왔다.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혼란이 많았고, 특히 서구권의 국가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마스크 착용 반대 시위들이 잦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문화차이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집단의 조화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마스크 착용 빈도가 높고 사회적 요인이 마스크 착용에 개인주의 문화에서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반면, 개인의 독립성과 선택이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개인적 요인이 마스크 착용에 집단주의 문화에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마스크 착용 빈도와 의도는 미국 참가자들과 비교해 한국 참가자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사회적 요인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크게, 개인적 요인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비말 차단 기능이 없어서 코로나 예방 효과가 전혀 없는 마스크를 착용할 의향도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관찰되었는데, 이 결과도 마스크의 기능과 관련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한국 참가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끝으로, 마스크 착용 의향과 코로나 예방 기능이 없는 마스크 착용에서 나타난 문화차이 모두는 사회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서 나타난 문화차이에 의해 매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 성향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같은 집단적 위기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차이, 코로나19, 마스크

[†] 교신저자: 정찬문,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5, Email: chanmunjeong@naver.com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보고된 첫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거의 2년이 되어가는 현재, 2021년 9월 기준으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총 470만 명 이상의 공식적인 사망자를 기록했으며(세계보건기구 COVID-19 Dashboard, '2021 9월') 이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특히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데, IMF는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세계 경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후로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이라고 발표했다(국제통화기금, 2020). 또한 사회적 문제도 코로나19 관련해 많이 발생하였는데, 미국에서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3800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동양인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하여 코로나19 혐오범죄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다(COVID-19 Hate Crimes Act, 2021 May 20). 이처럼 코로나19는 세계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코로나19에 맞서 여러 대책이 세워졌다. 한국의 마스크 대란(Kim, 2020), 뉴질랜드의 강력한 섣다운 정책(Robert, 2020), 화이자의 코로나19백신 개발(Polack et al., 2020) 등 전 세계적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각국에서 내린 조치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지만, 팬데믹의 초반 시기를 되돌아보면 이런 조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보다 더욱 혼란스러웠다.

코로나19에 맞서는 여러 대책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 정책에 대한 합의가 유달리 어려웠는데, 특히나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에서는 2020년 4월 즈음하여 마스크 의무착用に 대한 격렬한 반대 시위들이 자주 발발했고, 시위 참가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외쳤다(Beer, 2020; Leung, 2020; Wong, 2020; Zheng, 2020).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동양에서는 팬데믹의 초창기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시작하였다(Griffiths, 2020). 마

스크 착용의 효용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확인되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공식적으로 권장하였지만(세계보건기구, 2020) 처음부터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였던 아시아권 국가들과는 달리 서구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반발이 매우 심했다. 이와 같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문화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보인다.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동서양 차이가 나온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생각해 보면(Triandis, 2001; Markus & Kitayama, 1991; Suh et al., 1998; Iyengar & Lepper, 1999), 본인이 마스크를 쓰거나 쓰지 않음으로서 얻는 집단적 이익과 손해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개인적 이익과 손해는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더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와 관련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에서 왜 그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빈도와 그 이유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조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동양에서는 서양에 비해 사회적 이유가 마스크 착용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지만, 서양에서는 동양에 비해 개인적 이유가 마스크 착용에 영향이 더 크다는 가설을 검증해보았다. 더하여 마스크 착용 시의 불편함이나 미착용할 때 받을 사회적 비난 등과 같은 마스크 착용 시 고려되는 개인적 및 사회적 요소들을 밝히고 각 요소의 중요성이 문화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았다.

문화와 코로나19

개인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회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Markus & Kitayama, 1991)을 고려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문화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이 대두된다. 서유럽과 북미 문화권은 개인이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여기는 개인주의적 문화로 분류되는데(Triandis, 1995), 개인주의적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은 타인과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졌다는 믿음이 강하다(Markus & Kitayama, 1994). 한편 집단주의적 문화로 분류되는 동아시아권의 문화는 개인들 간의 본질적 연결성을 강조하며, 이런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여긴다(Kitayama, Park, Sevincer, Karasawa, & Uskul, 2009). Hofstede(1984)는 다음과 같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정의하기도 하였다. “개인주의는 개인 간의 유대가 느슨한 사회를 말한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와 직계가족만을 돌보도록 기대된다. 집단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탄생 이후로 즉 강하고 결속력 있는 내집단에 소속되게 되며, 그것은 절대적인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평생 그들을 보호해준다” (206-261쪽). 물론 국가마다 어느 정도로 집단주의적 또는 개인주의적 문화인지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으나, 동북아시아 문화에서는 집단주의가 지배적이며 서구권은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로 익히 알려져 있고, 집단주의-개인주의 경향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심리적인 차이가 있음이 매우 많은 연구들로 뒷받침되어왔다(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Oyserman & Lee, 2008; Triandis 2018).

코로나19 대책들에 대한 동양과 서구권에서의 태도 차이도 이런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집단주의적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며, 이런 문화적 특성은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개인적 필요를 억누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Kitayama et al., 2018). 그렇기에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코로나 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순응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주의적 문화의 특징들은 코로나19 관련 대책들을 따르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서유럽과 북미와 같은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는 사회규범과 전통은 단지 개인의 자아 표현과 자율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Kraus & Kitayama, 2019), 자신의 집단,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불리한 행동에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차를 생각해보면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기 또한 사회적 이유가 클 수 있는데, 이는 집단주의의 핵심적 특징이 곧 집단의 조화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주의적 문화는 사회 조화(social harmony)를 강조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가 입증했는데, 일례로 Yeh, Arora, & Wu(2007)의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적 문화들은 사회 조화를 위해서 개개인에게 인내(forbearance)를 장려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내는 주로 타인의 필요를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할 때 나타난다(Henkin, 1985; Marsella, 1993). 또한 Sasaki와 Ortlieb(2017)의 연구는 일본인들은 자신의 집단의 조화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표현하기를 꺼려함을 시사했다. 이처럼 동양 사회에서는 인내와 사회 조화가 중요하고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과 손해보다 더 우선으로 여긴다. 만일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거나 자기를 통해 주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마스크 미착용은 집단의 조화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는 자발적 마스크 착용이 잦을 것이다. 더욱이, 집단주의적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개인주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상황에 맞춰 변화시키는 경향성이 있다(Morling & Fiske, 1999). 따라서 만약 법제화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더라도 집

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러한 조치에 반발하기보다 집단의 조화를 지키고자 순응할 수도 있다. 이는 Bond와 Smith(1996)의 Asch 선분 길이 판단 과제 메타분석 연구에서 동양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더 강한 순응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도 타당하다. 그러므로 똑같이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동양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이유가 서구권에서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집단주의 문화와 달리 개인주의적 문화의 핵심 가치는 개인의 독특성이다(Markus & Kitayama, 1994; Realo, Koido, Ceulemans, & Allik, 2002). 개인주의적 문화권은 개인의 필요를 집단의 필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 그리고 그런 문화권에 속한 사람의 사회적 행동은 대체로 개인적 선호와 태도가 좌우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Gorodnichenko & Roland, 2011). 또한 Triandis(1990)는 개인주의를 정의하는 특성은 개인과 내집단 간의 거리, 감정적 분리와 경쟁이라고 하였다. 이런 문화적 특성 때문에 서구권의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들이 자신의 이익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마뜩잖게 여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이익과 손해를 집단의 이익과 손해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Hofstede, 2001) 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바탕으로 예상해보자면 서구권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빈도가 동양에 비해 낮고, 마스크를 쓸 때도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나 손해가 생길지를 동양 사람들에 비하여 더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종합하면,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에 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여 마스크를 착용할 의향 및 실제 착용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향 및 빈도에서의 문화 차이에 더하여 마스크 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문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조화와 다른 사람과

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사회적 요인이 마스크 착용 의도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반면에, 개인의 정체성과 권리를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사회적인 요인의 영향이 집단주의 문화권에 비해 더 작을 것이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에서 사회적 인식이나 타인의 평가와 같은 타인 관련 요인이 마스크 착용 여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심지어 비말 차단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을 것이다.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기 위하여 코로나 예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런 경향성은 매우 약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염려해 코로나 예방 기능이 없는 마스크라도 써야 하는 사회적 압력이 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중 특히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연구하였는데,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의향과 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개인의 기호에 따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Hofstede, 1980; Oyserman, Coon, & Kimmelmeier, 2002),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자신의 편의와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집단주의적 문화권에서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마스크를 쓸 때 그로 인해 물리적으로 얼마나 불편함이 느껴지는지, 마스크 가격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의 중요성이 동양권에서보다 서구권에서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고 사회 조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Triandis, 2001) 개인적 의사결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기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과 같은 외부적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쓸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자신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울지, 친밀한 사람과 함께 있는지 등을 서구권에 비해 동양권에서 더 크게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동양 문화권인 한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향에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지만, 서구문화권인 미국에서는 개인적 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보았다. 또한 사회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스크라도 착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미국인들보다 높은지도 검증해보았다.

참고로 본 연구가 준비되던 시기인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수 7일 평균이 표본 추출국인 한국의 경우 9건, 한국의 최근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각각 10건과 259건이었으며, 미국의 경우 7일 평균 28949건, 최근접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1589건과 1084건을 기록했다(세계보건기구 COVID-19 Dashboard, '2021 9월'). 당시의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있어서는 한국과 그 주변국가에 비해 미국과 그 주변국가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 자료 수집은 2020년 11월 이전 완료되었으므로, 연구 참여자들이 설문 응답 당시에는 한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이 시작되기 이전이었다. 그러므로 미국인 응답자들과 동일하게 한국인들도 법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되기 전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빈도를 측정할 것임을 밝혀둔다.

방 법

연구대상

미국인 참여자의 경우 사회과학적 연구에 널

리 쓰이고 있는 아마존 메커니컬터크(Amazon MTurk)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했고, 한국인 참여자의 경우 한국 연구자들이 메커니컬터크처럼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스프링을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했다. 총 미국인 389명과 한국인 399명을 모집하였으나 주의 확인 문항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총 소요 시간이 2분 미만인 참가자들을 제외하였다. 이때 소요 시간 기준점은 사전 조사에서 확인된 응답 시간이 평균적으로 2분인 점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미국인 242명(여성:106, 연령대: 18-68, 평균연령=35.98, 백인 147명, 히스패닉 18명, 흑인 48명, 동양계 11명, 북미 원주민 18명)과 한국인 319명(여성:150, 연령대: 16-64, 평균연령=35.67)만 분석에 포함했다. 나이와 성별에 있어 두 문화권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나이: $t(556) = 0.30, p = .77$; 성별: $X^2(1) = 0.56, p = .49$). 반면 평균 사회경제적지위에서는 두 문화권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었기에(한국: 6.35, 미국: 7.03 $t(510) = 4.21, p < .001, d = 0.34$) 분석과정에서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결과부분에 표로 제시하였다.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은 이 연구의 목적은 생활용품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설문의 첫 부분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마스크 착용 행동에 영향을 끼칠만한 요소들에 관한 질문을 제시했다. 이 요소들은 개인적 및 사회적 요인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각 분류 안에는 총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는 그러한 분류방식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고, 단순히 여덟 가지 요소들을 보고 각 요소가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쓸지 안 쓸지 결정하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응답하도록 했다. 또 자신이 실제로 마스크를 얼마나 자주 착용하

고 외출하는지도 물었다. 그 후에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읽고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마스크를 쓸 의향이 얼마만큼 있는지 표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 문항 질문들을 제시하고 설문을 마쳤다. 인구통계 문항에 포함된 정치적 성향과 사회경제적지위의 측정은 부록을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측정도구

개인적 요인

마스크 착용 여부에 있어서 영향 끼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된 이유들은 1) 마스크의 가격, 2) 마스크 착용 시의 불편함의 정도, 3) 날씨, 4) 자유의지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요인이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쓸지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라는 질문과 함께 각 항목에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1 = 전혀, 7 = 매우 많이). 이 네 가지 항목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이기 때문에, 이 항목들에 대한 각 참여자의 응답을 합산하고 평균을 낸 값을 ‘개인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사회적 요인

마스크 착용 여부에 있어서 영향 끼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된 이유들은 1)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 2) 해당 장소의 군중 밀집도, 3) 해당 장소에 타인이 존재함, 4) 누구와 함께인지(가족, 친구, 모르는 사람 등)이었다. 참여자들에게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요인이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쓸지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라는 질문과 함께 각 항목에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1 = 전혀, 7 = 매우 많이). 이 네 가지 항목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

을 하게 되는 이유들이기 때문에, 이 항목들에 대한 각 참여자의 응답을 합산하고 평균을 낸 값을 ‘사회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마스크 착용 빈도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마스크를 착용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당신은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얼마나 자주 착용하십니까?”(1 = 전혀 착용 안함, 7 = 언제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마스크 착용 의향

마스크 착용 의향에 있어 문화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참여자들은 “사재기 현상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으며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마스크는 마스크로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마스크는 당신의 비밀(침, 재채기 등)이 튀어 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에 의해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의 외관은 멀쩡하지만, 마스크로서 기능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공공장소에 있을 때, 당신이 여전히 이 마스크를 낄 의사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라는 시나리오를 받았고, 이것을 읽고 난 후 각 항목에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 = 전혀, 7 = 매우 많이).

분석방법

IBM의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사용해 통계분석을 했다. 문항 신뢰도 확인을 위해 상관관계와 신뢰도 분석을, 평균 차이 비교를 위해 독립집단 *t*-검증을, 집단 간 비교를 위해 혼합 ANCOVA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 Process Macro(Hayes, 2018)를 사용하였다.

결 과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표를 보고한다.

기술통계

마스크 착용의 실제 빈도와 의향의 문화 차이 검증

먼저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다른 모든 분석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성별, 나이, 정치적 성향,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기술통계표

변인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성별	319	242	47.0% [‡]	43.8% [‡]	-	-
나이	318	240	35.67	35.98	13.30	10.75
정치적 성향	319	242	3.73 ^{**}	4.86 ^{**}	1.34	1.68
사회경제적지위	295	217	6.35 ^{**}	7.03 ^{**}	1.50	2.15

[‡] 여성참여자의 비율을 의미함 ** p < .001

표 2.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한국과 미국 표본집단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AM	NM	Pri	Dis	Wea	Fre	Soc	Cro	Pre	Who	Gen	Age	Pol	SES
AM	1	.18 ^{**}	.05	-.05	.16 [*]	.30 ^{**}	.22 ^{**}	.26 ^{**}	.18 ^{**}	.2 ^{**}	.14 [*]	.09	-.12	-.00
NM	.09	1	.36 ^{**}	.23 ^{**}	.29 ^{**}	.37 ^{**}	.28 ^{**}	.29 ^{**}	.27 ^{**}	.24 ^{**}	.03	.07	.08	.14 [*]
Pri	.04	.05	1	.48 ^{**}	.56 ^{**}	.39 ^{**}	.28 ^{**}	.13 [*]	.36 ^{**}	.44 ^{**}	.05	-.05	.33 ^{**}	.17 [*]
Dis	-.15 ^{**}	-.03	.34 ^{**}	1	.46 ^{**}	.31 ^{**}	.33 ^{**}	.26 ^{**}	.49 ^{**}	.37 ^{**}	.05	-.09	.30 ^{**}	.01
Wea	-.06	-.08	.28 ^{**}	.51 ^{**}	1	.37 ^{**}	.32 ^{**}	.34 ^{**}	.41 ^{**}	.50 ^{**}	.12	-.14 [*]	.18 ^{**}	.09
Fre	.23 ^{**}	.04	.08	-.08	-.07	1	.39 ^{**}	.42 ^{**}	.38 ^{**}	.33 ^{**}	.09	.06	.01	.11
Soc	.10	.08	.20 ^{**}	.18 ^{**}	.15 ^{**}	.11	1	.38 ^{**}	.42 ^{**}	.37 ^{**}	.01	-.00	.19 ^{**}	.07
Cro	.14 ^{**}	.04	.13 [*]	.12 [*]	.14 [*]	.20 ^{**}	.20 ^{**}	1	.44 ^{**}	.32 ^{**}	.10	-.03	.07	.05
Pre	.11	.03	.05	.22 ^{**}	.21 ^{**}	.06	.36 ^{**}	.26 ^{**}	1	.48 ^{**}	.09	-.01	.21 ^{**}	.08
Who	.12 [*]	.00	.04	.11 ^{**}	.18 ^{**}	.05	.22 ^{**}	.36 ^{**}	.40 ^{**}	1	.12	-.09	.19 ^{**}	.18 ^{**}
Gen	.16 ^{**}	.03	.02	-.17 ^{**}	-.06	.06	.01	.08	.04	.03	1	.05	.07	-.12
Age	-.11	.08	.04	-.10	-.08	.01	-.18 ^{**}	-.09	-.18 ^{**}	-.07	-.15 ^{**}	1	.15 ^{**}	.18 ^{**}
Pol	-.01	.04	.04	.10	.11	-.04	.04	-.12 [*]	-.03	-.08	-.06	-.08	1	.09
SES	-.08	.01	-.09	-.02	-.04	.03	-.04	.05	-.05	.03	-.15 [*]	.19 ^{**}	.00	1

※ 대각선 위쪽은 미국표본, 아래쪽은 한국표본의 통계치이며, 각 변인의 줄임말은 다음과 같다:

AM:실제 마스크 착용 빈도, NM:제기능 하지 않는 마스크 착용 의향, Pri:마스크 가격, Dis:착용시 불편감, Wea: 날씨, Fre:자유의지, Soc:사회적비난가능성, Cro:균중밀집도 Pre:타인의존재 Who:누구와함께인지 Gen:성별 Age:나이 Pol:정치적성향 SES:사회경제적지위. 별표시는 *: p ≤ .05 **: p < .001를 의미한다.

빈도에서 실제로 문화차이가 나타나는지부터 먼저 분석해보았다. 독립 t -검정 결과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더 자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559) = -16.93, p < .001$, 한국 $M = 6.71, SD = 0.66$ 미국 $M = 5.17, SD = 1.45$). 이 결과는 나이, 성별, 정치적성향 및 사회경제적지위를 통제하고도 유의한 결과였다($F(1,504) = 198.24, p < .001, \eta_p^2 = 0.28$). 본 연구의 설문 응답시점은 한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이 결과는 법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공공 장소에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외관은 멀쩡하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스크를 쓸 의향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한국인이 더 착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59) = -2.04, p = .04$, 한국 $M = 5.08, SD = 1.90$, 미국 $M = 4.78, SD = 1.58$). 이 결과 또한 나이, 성별, 정치적성향 및 사회경제적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하였다 ($F(1,504) = 7.60, p = .006, \eta_p^2 = 0.02$). 그리고 실제 마스크 착용 빈도와 제 기능을 못하는 마스크 착용 의향 간에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r = .15, p < .001$), 그 효과 크기는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스크를 쓰겠다고 응답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항목 간 신뢰도 분석

본격적으로 마스크 착용 시 고려되는 요인에서 나타나는 문화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마스크 착용의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선택한 여덟 가지 이유가 연구자의 예상과 같이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된 요인들 간의 내적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인’의 α 는 .62였으며, ‘사회적 요인’의 α 는 .72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마

스크의 가격, 마스크 착용 시의 불편함의 정도, 날씨, 자유의지를 개인적 요인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 해당 장소의 군중 밀집도, 해당 장소에 타인 존재 여부, 누구와 함께인지에 대한 고려를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이들 요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 평균을 지표로 구성하여 먼저 분석하였다. 하지만 두 요인 모두 내적 일치도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 항목들의 분석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개인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의 평균 비교

다음으로는 마스크 착용 여부에 있어 고려되는 이유들을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했을 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하였다. 두 문화 집단(미국/한국)과 두 요인(개인적/사회적)이 존재하므로 2×2 혼합 ANCOVA 분석을 했고, 문화는 집단 간 변인으로, 요인은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했으며 나이, 성별, 정치 성향, 사회경제적지위를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의 주 효과($F(1,504) = 8.04, p = .005, \eta_p^2 = .02$)와 요인의 주 효과가 유의했다($F(1,504) = 28.79, p < .001, \eta_p^2 = .05$), 미국인 참가자들보다 한국인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주어진 요인들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M = 4.53, SE = 0.07$; 한국 $M = 4.79, SE = 0.06$), 사회적 요인의 평균이($M = 5.22, SE = 0.05$) 개인적 요인의 평균보다 높았다($M = 4.10, SE = 0.05$).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과인 문화와 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도 관찰되었다($F(1,504) = 229.13, p < .001, \eta_p^2 = .31$; 그림 1 참고). 이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 간 개인적 요인의 평균 차이를 독립집단 t -검정으로 분석해보니 문화차이가 유의했다($t(559) = 7.67, p < .001, d = 0.65$). 가설과 같이 마스크 착용에 고려되는 개인적 요인은 한국인들에게보다 미국인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다(한국 $M = 3.76, SD = 1.07$, 미국 $M = 4.53, SD = 1.31$). 또한 마스크 착용에 고려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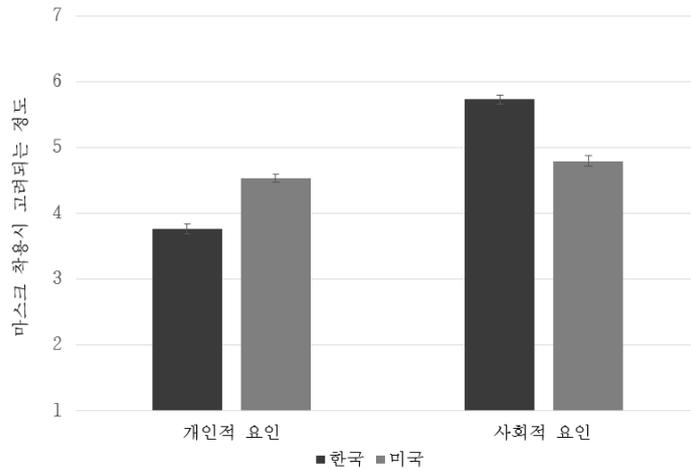


그림 1. 문화별로 나타난 마스크 착용에 고려되는 두 요인의 평균 점수 (오차막대는 ±1 평균오차를 의미함)

사회적 요인도 독립 t-검증 분석 결과 유의미한 문화차이를 보였고($t(559) = -9.72, p < .001, d = 0.82$), 사회적 요인은 미국인들에게보다 한국인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을 지지하였다(한국 $M = 5.73, SD = 1.06$, 미국 $M = 4.79, SD = 1.22$). 한편, 같은 문화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두 요인간 차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이 개인적 요인의 중요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t(241) = -3.76, p < .001, d = 0.21$; 한국: $t(318) = -28.14, p < .001, d = 1.85$).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차이(1197)가 미국에서의 차이(0.26)보다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사회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더 중요하고 개인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개별 항목들을 따로 분석하였을 때도

표 3. 마스크를 착용할 때 고려하는 여덟 가지 항목들의 중요도에 나타난 집단 간 평균 차이 독립t-검정 결과.

요소	한국의 평균과 표준편차	미국의 평균과 표준편차	효과크기(d)
마스크의 가격	2.74 ^a (1.73)	4.27 ^b (1.82)	0.86
착용 시 불편감	3.85 ^a (1.79)	4.46 ^b (1.71)	0.35
날씨	2.93 ^a (1.79)	4.50 ^b (1.74)	0.89
자유 의지	5.52 ^a (1.52)	4.88 ^b (1.63)	0.41
사회적 비난 가능성	5.41 ^a (1.62)	4.81 ^b (1.61)	0.37
장소의 군중 밀집도	6.28 ^a (1.28)	4.89 ^b (1.69)	0.93
타인의 존재	5.66 ^a (1.63)	4.74 ^b (1.72)	0.55
누구와 함께인지	5.57 ^a (1.58)	4.72 ^b (1.59)	0.54

a표시한 값과 b표시한 값의 차이는 모두 유의확률 .001미만의 차이임.

대체적으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 의지를 제외하고는 개인적 요인들로 분류된 요인들은 미국 참가자들이,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된 요인들은 한국 참가자들이 각각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빈도뿐만 아니라 고려하는 요인들의 중요성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하는 빈도에서 나타나는 문화 차이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에 나타나는 문화 차이에 의해 매개되는지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제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빈도에 대해서 한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스크 착용 의향에 대해서 한번, 총 두 번의 매개분석을 실시했다. 이때 Hayes Process Macro를 사용했고, 단순매개 모형인 Model 4에 Boot Strap 샘플 5000, 나이, 성별, 정치 성향, 사회경제적지위를 통제 변인으로 입력했다.

개인적 요인의 매개효과 유의성

그림 2와 3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마스크 착용 빈도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마스크 착용 의향에서 나타나는 문화 차이는 개인적 요인의 문화 차이에 의해 매개되지 않았다. 먼저 실제 마스크 착용 빈도를 종속변인으로 두었을 때, 문화에서 개인적 요인으로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b = -0.57, SE = 0.11, p < .001$), 개인적 요인과 마스크 실제 착용 빈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b = 0.00, SE = 0.05, p = .98$). 또한 개인적 요인을 통한 간접효과의 95% 신뢰 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었으며($b = -0.001, SE = .03, 95\% CI [-0.06, 0.05]$), 문화의 실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직접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 = 1.20, SE = 0.12, p < .001, 95\% CI [0.97, 1.44]$).

개인적 요인은 마스크가 그 기능을 하지 못

할 때에도 착용 의도에 끼치는 문화의 영향 또한 매개하지 않았다. 문화에서 개인적 요인으로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b = -0.57, SE = 0.11, p < .001$), 개인적 요인으로부터 제 기능을 하지 않는 마스크 착용 의향으로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 = 0.11, SE = 0.08, p = .14$). 또한 간접효과의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b = 0.27, Boot SE = 0.20, p = .18, 95\% Boot CI [-0.19, 0.03]$), 제 기능을 하지 않는 마스크의 착용 의향에 있어서 문화의 직접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b = 0.27, Boot SE = 0.20, p = .18, 95\% Boot CI [-0.13,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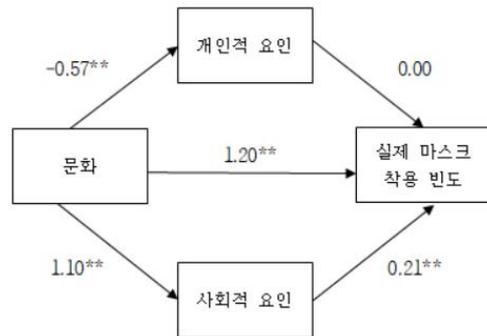


그림 2. 문화와 실제 마스크 착용 빈도의 관계에 사회적 요인이 미치는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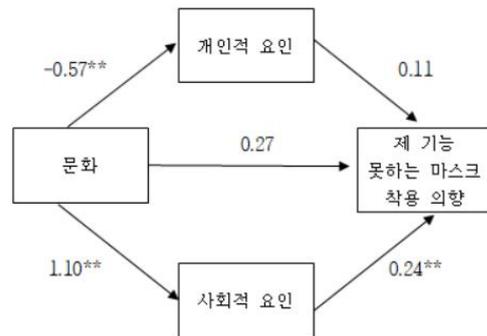


그림 3. 문화와 제 기능을 못하는 마스크 착용 의향의 관계에 사회적 요인이 미치는 매개효과

사회적 요인의 매개효과 유의성

한편 사회적 요인은 실제 마스크 착용 빈도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마스크 착용 의향에서 나타나는 문화 차이를 매개하였다. 먼저 실제 마스크 착용 빈도를 예측하는 매개 모형에서, 문화에서 사회적 요인으로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 = 1.10, SE = 0.11, p < .001$). 그리고 사회적 요인에서 실제 마스크 착용 빈도로의 회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 = 0.21, SE = 0.05, p < .001$). 결과적으로 사회적 요인을 통한 문화의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24, SE = 0.07, 95\% CI [0.11, 0.39]$; 그림 2 참고). 이는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더 사회적 요인을 중요시하며, 그에 따라 마스크를 더 자주 착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 요인은 또한 마스크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착용할 의향에 끼치는 문화의 영향도 매개했다. 문화에서 사회적 요인으로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b = 1.10, SE = 0.11, p < .001$),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기능하지 않는 마스크 착용 의향으로의 회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b = 0.24, SE = 0.08, p = .003$). 전체적으로 간접효과의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b = 0.26, SE = 0.11, 95\% CI [0.06, 0.50]$; 그림 3 참고). 이 매개효과는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사회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적 요인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기능하지 않는 마스크라도 착용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왜 착용하는지에 있어서 문화차이를 조사하였다. 우리는 실제 마스크 착용 빈도가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클 것을 예측했고,

마스크 착용 의향에 있어서 서구문화권인 미국 사람들에게는 동양권의 사람들에 비해 개인적 이유가 더 클 것을, 동양문화권인 한국 사람들에게는 서구권의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이유가 더 클 것을 예측했다. 연구 결과 위 가설들은 지지 되었다.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더 자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마스크가 제 기능을 못 할지라도 착용할 의향이 한국인들에게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향과 관련된 이유들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문화차이가 있었다. 마스크를 쓸지 결정할 때,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사회적 요인을 더 크게 고려하였으며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개인적 요인을 더 크게 고려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했다. 마스크를 착용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여덟 가지 구체적인 이유들(마스크의 가격, 착용 시의 불편감, 날씨, 자유의지, 사회적 비난, 군중 밀집도, 다른 사람의 존재, 누구와 함께인지)을 따로 분석하였을 때도 대체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추가적으로 마스크 착용 빈도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스크 착용의도에서 나타나는 문화 차이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에 의해 매개되는지 확인한 결과,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의 유의미한 간접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마스크는 물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스크도 착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은 사회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반응이 개인주의적 문화와 집단주의적 문화 간 다르다는 기존 연구들을 조금 더 확장하였고, 그 이유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더 자주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나타났고, 이는 기존의 뉴스 기사

(Montpetit & MacFarlane, 2020; Shumaker, 2020) 및 여론조사(Kramer, 2020)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구권보다 동양권에서 더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경향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사회적 요인을 더 중시하고, 사회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기능하지 않는 마스크라도 착용할 의향이 높았다. 이 결과는 한국이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인 집단의 이익과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며, 어떻게 한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일상에 쉽게 녹아들 수 있었는지 부분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왜 미국과 같은 서구권에서는 마스크와 코로나19방역 지침에 거부감이 더 큰지에 대한 실마리를 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미국인들이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는 정도가 한국인들에 비해 더 컸다. 이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자의가 아님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설령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락다운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타 방역지침에도 동양 문화권에서보다 서구 문화권에서 거부반응이 더 큰 이유를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에 맞서는 대응책들이 어떻게 각 문화의 특성에 맞춰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구상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므로(Hofstede, 2001), 서구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조치들을 따르는 것이 스스로의 건강과 안녕, 직업과 경제적 상황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집단주의 문화인 동양권에서는 집단의 조화가 중요하므로(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ca, 1988) 가족, 직장, 지역사회, 사회적 책임 등 타인 관련된 요소들을 더 부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주의적 문화가 코로나19의 대응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선행 연구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곳에서 코로나19 감염의 증가율, 확진자 수, 사망자 수가 높은 것과(Jiang Wie, & Zhang, 2020) 집단주의 성향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코로나19 예방적 행동의 실천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Bridlestone, Green, & Douglas, 2020). 또한 코로나19 이후 집단주의 성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Na et al., 2021). 본 연구는 이처럼 집단주의 성향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함의가 있다.

나아가, 이제 코로나19가 등장한 지도 어언 2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직접적 해결방식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태도의 문화차이 연구로 확장해 볼 수도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한국에서는 전체인구 중 62%, 전 세계적으로는 36%를 기록했다(Mathieu, Ritchie, Oritz-Ospina et al., 2021). 질병관리청의 인식조사 결과 한국에서는 백신을 이미 접종했거나 접종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표본의 약 72%였다(질병관리청, '2021년 5월'). 그러나 서구권에서는 마스크 관련 정책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거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다(Diaz, 2021; Woods, 2021). 이런 현상에 대해 백신 접종 의향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의 문화차이가 있는 것인지 연구해 볼 수도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이유로 가족 및 주변인, 그리고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의향에 대한 복수 응답 설문에서 접종의 이유로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76.4%)”와 “우리 사회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서(63.9%)”가 1위와 2위를 기록했다(질병관리청, 2021년 5월). 이것은 집단의 이익과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문화 특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영국인과 아일랜드인 대상의 한 연구는 백신에 대해 주저하거나 거부적인 사람들은 더 자기본위적이고,

삶의 통제 소재를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Murphy et al., 2021).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개인주의적인 문화권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못 미더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거나, 접종을 요구하는 직장이나 도시 등 소속집단을 이탈하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화차이 결과를 확장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직접적인 방법들에 대한 태도 차이와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또한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라 앞으로 일상생활을 재개하게 된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시행 중에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비롯하여 생활 속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물리적 거리두기, 개인위생행동, 의료/방역 대응 개편에 대한 태도 등 마스크착용 외의 개인 방역 지침에 대한 태도에 대한 확장연구 또한 해봄직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에 위기가 있을 때는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보다 더 적응적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Murray, Trudeau, & Schaller, 2011; Schaller & Duncan, 2007). 일례로 한 연구는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보다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했다(Xiang, Zhang, Geng, Zhou, & Wu, 2019). 본 연구를 포함한 이러한 연구들은 집단적인 행동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문화적 성향의 고려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가장 아쉬운 한계점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이해나 해석이 어려운 결과들이 몇가지 나타났다. 마스크를 쓸 때 고려하는 요인들을 두분류로 나누지 않고 각각 별

개의 항목으로 평균차이를 검증 하였을 때, 나머지 7가지 항목과는 달리 자유의지 항목만 유일하게 예상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추측해볼 수 있는 이유로는 자유의지는 제시된 8가지 항목중에 가장 추상적인 개념이기에 설문 응답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마스크 착용의무가 법제화 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봄 즈음하여 점점 마스크착용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으므로 한국의 연구참여자들은 마스크를 쓰는 새로운 규범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고자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또한 자유의지인 것으로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살펴본 기존연구들에 따르면 서양인과 다르게 동양인은 누군가 시켰기 때문에 주어진 작업을 할 때에도 내재적 동기가 떨어지지 않았다(Iyengar & Lepper, 2000; Na & Kitayama, 2012). 따라서 자유의지 항목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점의 이해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어서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마스크 친숙성이나 마스크 착용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통제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결과 분석에서 응답 편향을 완벽하게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에 비해 마스크를 쓴 얼굴이 더 신뢰도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는 결과가 나타났다(Olivera, Chuquichambi, & Ingram, 2020).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의 마스크 및 얼굴을 가리는 것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얼굴의 일부분을 가리는 것은 부정적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 예로, 얼굴 식별의 수월성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인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은 나일론 스타킹으로 가린 얼굴과 같이 식별성이 유의미하게 떨어졌고(Davis & Flin, 1984), 얼굴을 일부분 가린

상태에서는 표정의 구분이 어렵다는 연구결과 (Roberson et al., 2012)가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 19 이전에 이미 존재했을 수 있는 마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고려하여 마스크에 대한 친숙성이나 마스크 착용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통제하였다더라면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다. 또한 기존 문화연구들에서 문화권에 따라 응답편향이 나타나고(Heine et al., 2002),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자료를 표준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권장된다 (Fischer, 2004).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를 표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편향의 영향을 완벽하게 배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자료를 표준화 할 경우,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펴본 마스크 착용 빈도나 관련 요인에 대한 문화 집단 간 평균 비교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문화 집단 간 평균 비교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준화 없이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지만, 문화 집단 간 응답 편향의 차이는 비교 문화 연구 결과에 중요한 함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의향과 그 이유들에 문화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문화차이가 아닌 다른 문화차이 관점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일례로 문화적 뻘뻘함(cultural tightness)과 문화적 느슨함(cultural looseness)을 들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과 일본과 같은 ‘뻘뻘한’ 문화권에서는 사회 규범 및 이탈 행동에 대한 처벌에 있어 엄격하고, 그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비교적 적다고 한다. 한편, 미국과 이탈리아 같은 ‘느슨한’ 문화권에서는 사회 규범이 좀 더 느슨하며 개인의 재량이 허락된다(Gelfand et al., 2011; Gelfand, Harrington & Jackson, 2017). 문화적 뻘뻘함이 높다고 분류되는 나라들은 자연재해, 전염병, 침략 등 국가적 위기를 역사적으로 많이 겪어온 나라들이 많은데(Harrington & Gelfand, 2014), 문화는

당연히 생태적 및 역사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집단에 위기가 많이 닥쳤던 나라들은 엄격한 규범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자연스레 중요시되는 문화로 발전하였을 것이다(Roos, Gelfand, Nau, & Lun, 2015). 그러므로 왜 동양과 서양에서 코로나 19 대응책들에 다르게 반응하는지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뻘뻘함-느슨함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다. 사회 규범과 집단적 행동을 중요시하고 이미 그것들에 익숙한 문화적 뻘뻘함이 높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도 코로나 19의 대응책들에 더 잘 따를 수 있고, 문화적으로 느슨한 곳에서는 자유가 더욱 중시되어왔었기 때문에 여러 방역 수칙들이 자신의 자유 및 권리를 방해한다고 느껴 반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뻘뻘하나 느슨하나에 따라서 사회적 이유와 자기 관련된 이유 중 무엇이 더 큰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더욱이 실제로 문화적 뻘뻘함이 높은 국가에서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힘을 더 많이 행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Gelfand et al., 2011).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타인 관련 요인의 중요도가 왜 한국인 집단에서 미국인 집단보다 더 크게 나왔는지를 문화적 뻘뻘함-느슨함의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뻘뻘함-느슨함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요인들이 마스크 착용에 있어 나타난 문화차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성향은 다양한 하위 영역이 존재하는 복합적인 구성 개념이기 때문에(Na et al., 2010; 2020),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성향중에서 어떤 특성이 본 연구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성향은 일차 통제와 이차 통제로 대비되는 통제 소재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Weisz,

Rothbaum, & Blackburn, 1984). 일차 통제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통제 방식으로, 주로 개인주의 문화들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만약 주어진 환경과 자신이 맞지 않는다면 일차 통제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도록 환경을 바꾼다. 이와는 다르게 이차 통제 방식은 맞닥뜨린 문제를 재해석하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는 방식이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더욱 우세하게 나타난다 (Rothbaum, Weisz, & Snyder, 1982). 이와 같은 통제 소재의 차이가 마스크 구매 및 착용 의향에서 나타나는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의 차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차 통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사회적 규범에 자신의 행동을 맞춰 나가는 경향이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성향의 어떠한 측면이 본 연구의 결과를 특히 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후속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마스크 착용 빈도와 의도에서 나타나는 문화차이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나타나는 문화차이를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서구권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함의가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 협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문화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성향과 전염병과의 관계를 탐색했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의 기원과 역할을 탐색하는 관련 문헌들(Fincher, Thornhill, Murray, & Schaller, 2008; Murray & Schaller, 2010)과 연결될 수 있는

학문적 함의가 있다.

저자 소개

강민혜는 Liberty University 심리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사회인지, 문화심리학, 비교문화연구, 문화로서의 종교이다.

정찬문은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심리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서강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비교문화연구와 진화심리학이다.

나진경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 석사를,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심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참고문헌

질병관리청. (2021).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5월). 질병관리청.
http://ncov.mohw.go.kr/upload/140/202105/1622425491097_20210531104451.pdf

Bai, W., Cai, H., Liu, S., Liu, H., Qi, H., Chen, X., ... & Xiang, Y. T. (2021). Attitudes toward COVID-19 vaccines in Chinese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 17(6), 1469. <https://dx.doi.org/10.7150%2Fijbs.58835>

Beer, T. (2020, July 16). Anti-Mask Rallies Continue In U.S. Amid Rising Coronavirus Cases And Deaths.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tommybeer/2020/07/16/anti-mask-rallies-continue-in-us-amid-rising-coron>

- avirus-cases-and-deaths/?sh=7c755a352246
- Biddlestone, M., Green, R., & Douglas, K. M. (2020). Cultural orientation, power, belief in conspiracy theories, and intentions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9*(3), 663-673.
DOI:10.1111/bjso.12397
- Bond, R., & Smith, P. B. (1996). Culture and conformity: A meta-analysis of studies using Asch's (1952b, 1956) line judgment task. *Psychological Bulletin, 779*(1), 111-137.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33-2909.119.1.111>
- COVID-19 Hate-Crimes Act 2021, U.S.C. S.937-117th Congress (2021-2022): COVID-19 Hate Crimes Act. (2021, May 20).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937/text>
- Davies, G., & Flin, R. (1984). The man behind the mask—disguise and face recognition. *Human Learning: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 Applications, 3*(2), 83-95.
- Diaz, J. (2021, Oct. 12). Pelosi's trip to Rome was disrupted by violent anti-vaccine mandate protests. *National Public Radio*.
<https://www.npr.org/2021/10/21/1045181390/pelosi-i-italy-trip-disrupted-by-green-pass-covid-protests>
- Fischer, R. (2004). Standardization to account for cross-cultural response bias: A classification of score adjustment procedures and review of research in JCCP.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263-282.
<https://doi.org/10.1177/0022022104264122>
- Fincher, C. L., Thornhill, R., Murray, D. R., & Schaller, M. (2008). Pathogen prevalence predicts human cross-cultural variability in individualism/collectivism.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75*(1640), 1279-1285.
<https://doi.org/10.1098/rspb.2008.0094>
- Gelfand, M. J., Harrington, J. R., & Jackson, J. C. (2017). The strength of social norms across human group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72*(5), 800-809.
<https://doi.org/10.1177/1745691617708631>
- Gelfand, M. J., Raver, J. L., Nishii, L., Leslie, L. M., Lun, J., Lim, B. C., ... & Yamaguchi, S. (2011). Differences between tight and loose cultures: A 33-nation study. *Science, 332*(6033), 1100-1104.
<https://doi.org/10.1126/science.1197754>
- Gorodnichenko, Y., & Roland, G. (2011). Individualism, innovation, and long-run growth.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705*(Supplement 4), 21316-21319.
<https://doi.org/10.1073/pnas.1101933108>
- Griffiths, J. (2020, Apr. 23). Asia may have been right about coronavirus and face masks,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coming around. *The Cable News Network*.
<https://edition.cnn.com/2020/04/01/asia/coronavirus-mask-messaging-intl-hnk/index.html>
- Harrington, J. R., & Gelfand, M. J. (2014). Tightness-looseness across the 50 united stat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777*(22), 7990-7995.
<https://doi.org/10.1073/pnas.1317937111>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https://doi.org/10.1037/0033-295X.106.4.766>
- Heine, S. J., Lehman, D. R., Peng, K., & Greenholtz, J. (2002). What's wrong with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subjective Likert

- scales?: The reference-group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903 - 918.
- Henkin, W. A. (1985). Toward counseling the Japanese in America: A cross-cultural primer.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3(8), 500-503.
<https://doi.org/10.1002/j.1556-6676.1985.tb02745.x>
- Hofstede, G. (1980). Culture and organiz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Organization*, 10(4), 15-41.
<https://doi.org/10.1080/00208825.1980.11656300>
- Hofstede, G. (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Vol. 5). Sage.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Sage publications.
- IMF. (2020). IMF Annual Report 2020: COVID-1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external/pubs/ft/ar/2020/eng/spotlight/covid-19/>
- Iyengar, S. S., & Lepper, M. R. (2000). When choice is demotivating: Can one desire too much of a good t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995.
- Jiang, S., Wei, Q., & Zhang, L. (2020). Impacts of Cultural Difference on the Transmission of COVID-19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Collectivism* (July 8, 2020).
<https://dx.doi.org/10.2139/ssrn.3646229>
- Kim, H. (2020). Lesson Learned from the Power of Open Data: Resolving the Mask Shortage Problem Caused by COVID-19 in South Korea. *Sustainability*, 13(1), 278.
<https://doi.org/10.3390/su13010278>
- Kitayama, S., Park, H., Sevincer, A. T., Karasawa, M., & Uskul, A. K. (2009). A cultural task analysis of implicit independence: Comparing North America, Western Europe, and East As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2), 236 - 255. <https://doi.org/10.1037/a0015999>
- Kitayama, S., Park, J., Miyamoto, Y., Date, H., Boylan, J. M., Markus, H. R., ... & Ryff, C. D. (2018). Behavioral adjustment moderates the link between neuroticism and biological health risk: A US-Japan comparison stud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4(6), 809-822.
- Kramer, S. (2020). More Americans say they are regularly wearing masks in stores and other businesses.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8/27/more-americans-say-they-are-regularly-wearing-masks-in-stores-and-other-businesses/>
- Kraus, B., & Kitayama, S. (2019).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predicts emotion suppression in Asian Americans: an electro-cortical investigation. *Biological Psychology*, 146, 107733.
<https://doi.org/10.1016/j.biopsycho.2019.107733>
- Leung, H. (2020, March 12). Why Face Masks Are Encouraged in Asia, but Shunned in the U.S. *Time*.
<https://time.com/5799964/coronavirus-face-mask-asia-us/>
- Machida, M., Nakamura, I., Kojima, T., Saito, R., Nakaya, T., Hanibuchi, T., ... & Inoue, S. (2021). Acceptance of a COVID-19 Vaccine in Japa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Vaccines*, 9(3), 210.
<https://doi.org/10.3390/vaccines9030210>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 - 253.
<https://doi.org/10.1037/0033-295X.98.2.224>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68-579.
<https://doi.org/10.1177%2F0146167294205013>
- Marsella, A. J. (1993).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 with Japanese Americans: Cross-cultural consideratio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3(2), 200-208. <https://doi.org/10.1037/h0079431>
- Mathieu, E., Ritchie, H., Ortiz-Ospina, E., Roser, M., Hasell, J., Appel, C., ... & Rod s-Guirao, L. (2021). A global database of COVID-19 vaccinations. *Nature Human Behaviour*, 5, 947-953. <https://doi.org/10.1038/s41562-021-01122-8>
- Montpetit, J., & MacFarlane, J. (2020, Sep. 12). Anti-mask protest in Montreal draws large crowd, propelled by U.S. conspiracy theories.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anti-mask-protest-montreal-1.5722033>
- Morling, B., & Fiske, S. T. (1999). Defining and measuring harmony contro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4), 379-414. <https://doi.org/10.1006/jrpe.1999.2254>
- Murphy, J., Valli res, F., Bentall, R. P., Shevlin, M., McBride, O., Hartman, T. K., ... & Hyland, P. (2021).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COVID-19 vaccine hesitancy and resistance in Ireland and the United Kingdom. *Nature Communications*, 12(1), 1-15. <https://doi.org/10.1038/s41467-020-20226-9>
- Murray, D. R., & Schaller, M. (2010). Historical prevalence of infectious diseases within 230 geopolitical regions: A tool for investigating origins of cult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1), 99-108. doi:10.1177/0022022109349510
- Murray, D. R., Trudeau, R., & Schaller, M. (2011). On the origins of cultural differences in conformity: Four tests of the pathogen prevalence hypothe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3), 318-329. <https://doi.org/10.1177/0146167210394451>
- Na, J., Grossmann, I., Varnum, E. W. M., Karaswa, M., Cho, Y. W., Kitayama, S., & Nisbett, R. E. (2020). Culture and personality revisited: Behavioral profiles and within-person stability in interdependent/independent social orientation and holistic/analytic cognitive style. *Journal of Personality*, 88, 908-924. <https://doi.org/10.1111/jopy.12536>
- Na, J., Grossmann, I., Varnum, E. W. M., Kitayama, S., Gonzalez, R., & Nisbett, R. E. (2010). Cultural differences are not always reducible to individual differen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7(14), 6192-6197.
- Na, J., Kim, N., Suk, H. W., Choi, E., Choi, J. A., Kim, J. H., . . . Choi, I. (2021). Individualism-collectivism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field study testing the pathogen stress hypothesi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Kore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3, 111127. doi: <https://doi.org/10.1016/j.paid.2021.111127>
- Na, J., & Kitayama, S. (2012). Will people work hard on a task they choose? Social-eyes priming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1), 284-290.
- Olivera-La Rosa, A., Chuquichambi, E. G., & Ingram, G. P. (2020). Keep your (social) distance: Pathogen concerns and social perception in the time of COVID-19.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6, 110200.
- Oyserman, D., & Lee, S. W. S. (2008). Does culture influence what and how we think? Effects of prim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Bulletin*, 134(2), 311-342. <https://doi.org/10.1037/0033-2909.134.2.311>
- Oyserman, D., Coon, H. M., & Ku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 <https://doi.org/10.1037/0033-2909.128.1.3>
- Polack, F. P., Thomas, S. J., Kitchin, N., Absalon, J., Gurtman, A., Lockhart, S., ... & Gruber, W. C. (2020). Safety and efficacy of the BNT162b2 mRNA Covid-19 vaccin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83, 2603-2615.
DOI: 10.1056/NEJMoa2034577
- Realo, A., Koido, K., Ceulemans, E., & Allik, J. (2002). Three components of individualism.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76(3), 163-184.
<https://doi.org/10.1002/per.437>
- Roberson, D., Kikutani, M., Döge, P., Whitaker, L., & Majid, A. (2012). Shades of emotion: What the addition of sunglasses or masks to faces reveals about the development of facial expression processing. *Cognition*, 125(2), 195-206.
- Robert, A. (2020). Lessons from New Zealand's COVID-19 outbreak response. *The Lancet Public Health*, 5(11), 569-570.
[https://doi.org/10.1016/S2468-2667\(20\)30237-1](https://doi.org/10.1016/S2468-2667(20)30237-1)
- Roos, P., Gelfand, M., Nau, D., & Lun, J. (2015). Societal threat and cultural variation in the strength of social norms: An evolutionary ba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29, 14-23.
<https://doi.org/10.1016/j.obhdp.2015.01.003>
-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S. (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1), 5 - 37.
<https://doi.org/10.1037/0022-3514.42.1.5>
- Sasaki, Y., & Ortlieb, E. (2017). Investigating why Japanese students remain silent in Australian university classrooms: The influences of culture and identity. *Journal of Asian Pacific Communication*, 27(1), 85-98.
<https://doi.org/10.1075/japc.27.1.05sas>
- Schaller, M., & Duncan, L. A. (2007). The behavioral immune system: Its evolution and social psychological implications. In J. P. Forgas, M. G. Haselton, & W. von Hippel (Eds.), *Evolution and the social mind: Evolutionary psychology and social cognition* (pp. 293 - 307).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 Shumaker, L. (2020, July 12). As COVID-19 cases surge in Florida, anti-mask activists hold protests, Disney World reopens.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coronavirus-usa-idUSL2N2EJ046>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Cross-Cultural Perspectives*. 41-134.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C. (2001),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9. 907-924.
<https://doi.org/10.1111/1467-6494.696169>
- Triandis, H. C. (201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Routledge.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N.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2), 323-338.
<https://doi.org/10.1037/0022-3514.54.2.323>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68-579.
- WHO COVID-19 Dashboard.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Available online: <https://covid19.who.int/> (last cited: [2020, September 30])
- Woods, E. (2021, Oct. 10). Dozens fined after another weekend of anti-vaccination protests in Melbourne. *7 News*.
<https://7news.com.au/lifestyle/health-wellbeing/dozens-fined-after-another-weekend-of-anti-vaccination-protests-in-melbourne-c-4195131.asp>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Mask use in the context of COVID-19 [WHO/2019-nCoV/IPC_Masks/2020.5].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advice-for-public/when-and-how-to-use-masks>
- Xiang, P., Zhang, H., Geng, L., Zhou, K., & Wu, Y. (2019). Individualist - collectivist differences in climate change inaction: The role of perceived intractability. *Frontiers in Psychology, 10*, 187. <https://doi.org/10.3389/fpsyg.2019.00187>
- Yeh, C. J., Arora, A. K., & Wu, K. A. (2006). A new theoretical model of collectivistic coping. In *Handbook of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55-72. Springer. https://doi.org/10.1007/0-387-26238-5_3
- Weisz, J. R., Rothbaum, F. M., & Blackburn, T. C. (1984). Standing out and standing in: The psychology of control in America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39*(9), 955-969. <https://doi.org/10.1037/0003-066X.39.9.955>
- Zheng, S. (2020, March 14). Face mask culture during the coronavirus: East vs West.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news/china/society/article/3075211/face-masks-and-coronavirus-how-culture-affects-your-decision>.

1 차원고접수 : 2021. 11. 02.

수정원고접수 : 2021. 12. 02.

최종게재결정 : 2021. 12. 03.

COVID-19 and Face Masks: East-West Cultural Differences in Wearing Face Masks in Public

Min Hye Kang

Chanmun Jeong

Jinkyung Na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COVID-19 continues to be a threat to humanity since its first reported case in Wuhan, China in November 2019. Among various countermeasures to combat COVID-19, face masks are known to be the most effective method. However, there was much confusion in the earlier stages of the pandemic, and especially in the West, protests against wearing masks were frequent unlike in the East. Based on this phenomenon, the current research investigated the cultural difference related to wearing face masks in the pandemic. Specifically, we hypothesized that in collective cultures that value ingroup harmony and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s, people would wear face masks more frequently and would be influenced by social factors more compared to individualistic cultures. We also hypothesized that in individualistic cultures that value independence and choice, people would wear masks less and would consider personal factors more importantly compared to collectivistic cultur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requency and intention to wear masks were higher in Koreans compared to Americans. Also, Koreans considered social factors more importantly compared to Americans, and Americans weighed personal factors greater compared to Koreans. Furthermore, the frequency of actually wearing a mask and the intention to wear a non-functioning mask were mediated by the degree of the social factor's import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moting collectivism can help deter COVID-19 and that culturally appropriate measures are necessary for collective crises like COVID-19.

Key words : Collectivism, Individualism, Cultural Difference, COVID-19, Face Masks

부록 I :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국문)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의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스크를 쓰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설문이며, 설문에 모두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5분 정도로 걸리는 짧은 설문입니다. 설문지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귀하는 마스크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응답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귀하는 본인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응답을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밑에 기술되어있는 안내사항들을 전부 읽고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는 정상시력 혹은 교정 후 정상시력을 가진 만 18세 이상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기록되며 학술적인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설문에는 옳거나 그른 대답이 없으므로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에는 귀하가 정독을 하고 있으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여럿 있으니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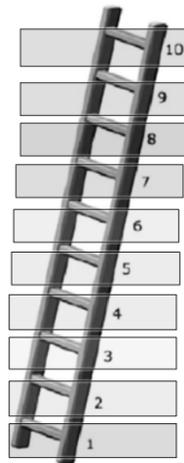
설문지에 있는 몇몇 문항들은 귀하에게 가벼운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설문 응답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에 대해 다른 우려 사항들이 있으시면 연구자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취해주십시오(chanmunjeong@naver.com). 연구자는 참여자를 잠재적인 위험 혹은 부작용으로부터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분석이 끝난 후, 모든 수집된 데이터는 컴퓨터 서버상에서 삭제될 것입니다.

○ 나는 설문의 안내사항을 읽었으며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요인이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쓸지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 요인: 사회적 비난 가능성
1: 전혀 2: 아주 조금 3: 조금 4: 보통 5: 꽤 6: 많이 7: 매우 많이
2.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요인이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쓸지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 요인: 나의 자유의지
1: 전혀 2: 아주 조금 3: 조금 4: 보통 5: 꽤 6: 많이 7: 매우 많이
3.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요인이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쓸지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 요인: 마스크의 가격
1: 전혀 2: 아주 조금 3: 조금 4: 보통 5: 꽤 6: 많이 7: 매우 많이

4.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요인이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쓸지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 요인: 장소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1: 전혀 2: 아주 조금 3: 조금 4: 보통 5: 꽤 6: 많이 7: 매우 많이
5.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요인이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쓸지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 요인: 마스크를 쓸 때 불편한 정도
1: 전혀 2: 아주 조금 3: 조금 4: 보통 5: 꽤 6: 많이 7: 매우 많이
6.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요인이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쓸지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 요인: 날씨
1: 전혀 2: 아주 조금 3: 조금 4: 보통 5: 꽤 6: 많이 7: 매우 많이
7.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요인이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쓸지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 요인: 타인의 존재
1: 전혀 2: 아주 조금 3: 조금 4: 보통 5: 꽤 6: 많이 7: 매우 많이
8.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요인이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쓸지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 요인: 내가 누구와 있는지(친구, 가족, 이웃, 낯선 사람 등)
1: 전혀 2: 아주 조금 3: 조금 4: 보통 5: 꽤 6: 많이 7: 매우 많이
9. 다음은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해당 상황을 상상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사재기 현상 때문에 당신은 더이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으며 당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마스크는 마스크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마스크는 당신의 비밀(침, 재채기 등)이 튀어 나가는 것을 차단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에 의해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의 외관은 멀쩡하지만, 마스크로써의 기능은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공공장소에 있을 때, 당신이 여전히 이 마스크를 낄 의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7점 척도로 응답을 해 주십시오.
1: 전혀 2: 아주 조금 3: 조금 4: 보통 5: 꽤 6: 많이 7: 매우 많이

10. 당신은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얼마나 자주 착용하십니까?
1: 전혀 2: 드물게 3: 가끔 4: 때때로 5: 자주 6: 대부분 7: 언제나
1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12. 당신은 몇 살입니까? (만으로)
13. 당신의 국적은 어느 곳입니까?
14. 당신의 정치적 성향을 어떻게 기술 하시겠습니까?
1: 매우 진보적 2: 진보적 3: 약간 진보적 4: 중간 5: 약간 보수적 6: 보수적 7: 아주 보수적
15. 주어진 사다리가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다리의 맨 위쪽은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최고로 존경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다리의 맨 아래쪽은 최저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적은 돈을 보유하고, 최저의 교육을 받았으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무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다리의 위쪽에 가까울수록 최고와 가까우며 아래쪽에 가까울수록 최저와 가깝습니다. 다른 한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당신은 이 사다리의 몇 번째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숫자를 클릭하십시오



부록Ⅱ: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영문)

Thank you very much for participating in this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possible factors that could affect people's mask wearing behaviors, amid the Corona Virus(COVID-19) incident. This survey is composed of two parts: part 1, you will be asked to answer questions about mask. In part 2, you will be asked to answer some demographic questions, but none of the questions can identify who you are, so please answer as honest as possible.

Before you move on to the next page, please make sure you read through and understand all the instructions below. By participating in this research, you are confirming that you are an American citizen who is over 18 years old and have normal or corrected-to-normal vision. Your response is completely anonymous and will not be used other than academic purpose. We do not collect any data that can identify who you are. There are no right or wrong answer, so please answer the questions honestly. Throughout the survey, there will be several attention check questions to make sure that you are paying attention to the survey. If you fail to pass the attention check questions, you will NOT be rewarded for your completion of the survey. If the survey is making you uncomfortable, you may withdraw your participation at any given point.

Some of the questions in the survey might cause mild discomfort. If you feel so, you can always withdraw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other concerns regarding your participation, please contact the researcher via email(chanmunjeong@naver.com). The researcher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articipants from any other potential danger or side effects. Upon completion of the data collection/analysis, all collected data will be removed from the content server.

I have understood the terms of the survey and agree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1. How much does the described factor affects whether you wear your mask or not in a public space, upon the Corona Virus incident? Please answer the question on a 7 point scale. Factor: The possibility of social blame

1: Not at all 2: Slightly 3: A little 4: Moderately 5: Quite a bit 6: A lot 7: Extremely

2. How much does the described factor affects whether you wear your mask or not in a public space, upon the Corona Virus incident? Please answer the question on a 7 point scale. Factor: My free will

1: Not at all 2: Slightly 3: A little 4: Moderately 5: Quite a bit 6: A lot 7: Extremely

3. (How much does the described factor affects whether you wear your mask or not in a public space, upon the Corona Virus incident? Please answer the question on a 7 point scale. Factor: The price of the mask

1: Not at all 2: Slightly 3: A little 4: Moderately 5: Quite a bit 6: A lot 7: Extremely

4. How much does the described factor affects whether you wear your mask or not in a public space, upon the Corona Virus incident? Please answer the question on a 7 point scale. Factor: How much crowded the location is
1: Not at all 2: Slightly 3: A little 4: Moderately 5: Quite a bit 6: A lot 7: Extremely

5. (How much does the described factor affects whether you wear your mask or not in a public space, upon the Corona Virus incident? Please answer the question on a 7 point scale. Factor: The amount of discomfort when wearing a mask
1: Not at all 2: Slightly 3: A little 4: Moderately 5: Quite a bit 6: A lot 7: Extremely

6. (How much does the described factor affects whether you wear your mask or not in a public space, upon the Corona Virus incident? Please answer the question on a 7 point scale. Factor: Weather
1: Not at all 2: Slightly 3: A little 4: Moderately 5: Quite a bit 6: A lot 7: Extremely

7. How much does the described factor affects whether you wear your mask or not in a public space, upon the Corona Virus incident? Please answer the question on a 7 point scale. Factor: The presence of others
1: Not at all 2: Slightly 3: A little 4: Moderately 5: Quite a bit 6: A lot 7: Extremely

8. (How much does the described factor affects whether you wear your mask or not in a public space, upon the Corona Virus incident? Please answer the question on a 7 point scale. Factor: Who I am with (friends, families, neighbors, strangers, etc.)
1: Not at all 2: Slightly 3: A little 4: Moderately 5: Quite a bit 6: A lot 7: Extremely

9. Imagine a scenario where you cannot purchase anymore masks, and the only mask you possess cannot function as a mask. In other words, it cannot prevent your droplets(saliva, sneeze, etc.) from splashing out and it cannot protect you from getting infected by others. The appearance of the mask seems fine, but it just cannot function as a mask. When you are in a public space, how much are you willing to still wear that mask? Please answer the question on a 7 point scale.
1: Not at all 2: Slightly 3: A little 4: Moderately 5: Quite a bit 6: A lot 7: Extremely

10. How often do you ACTUALLY WEAR your mask when you go outdoors?
1: Not at all 2: Slightly 3: A little 4: Moderately 5: Quite a bit 6: A lot 7: Extremely

11. What is your gender?

- Male Female

12. What is your age?

13. What is your nationality?

14. What is your race or ethnicity?

- 1: White/Caucasian 2: Hispanic/Latino 3: Black/African American 4: Asian
5: Native American 6: Native Hawaiian/Pacific Islander 7: Other

15. How would you describe your political inclination?

- 1: Very liberal 2: Liberal 3: Somewhat liberal 4: Midway
5: Somewhat conservative 6: Conservative 7: Very conservative

16. Think of this ladder as representing where people stand in the United States. At the top of the ladder are the people who are best off - those who have the most money, the most education, and the most respected jobs. At the bottom are the people who are the worst off - who have the least money, least education, and the least respected jobs or no job. The higher up you are on this ladder, the closer you are to the very top; the lower you are, the closer you are to the people at the very bottom. Where would you place yourself on this ladder? Please click the number where you think you stand at this time in your life, relative to other people in the United States.

